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54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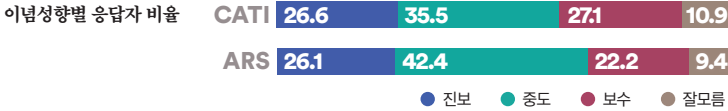
제69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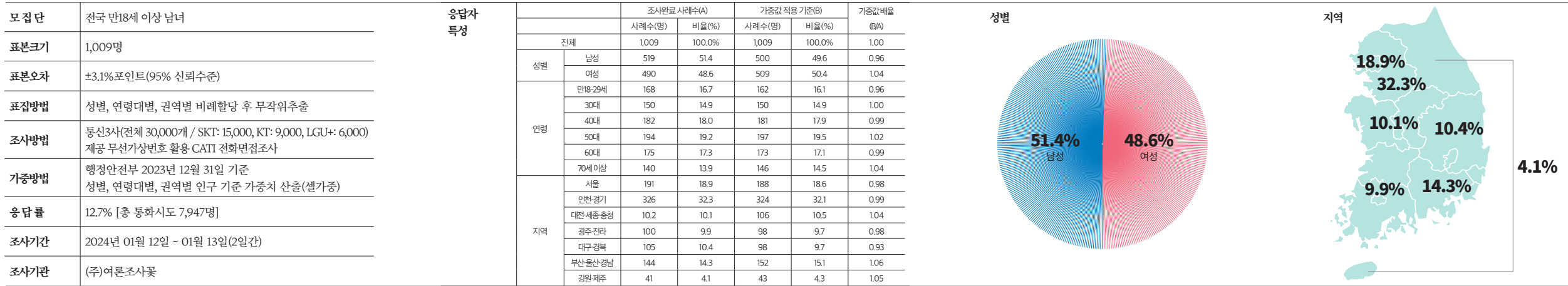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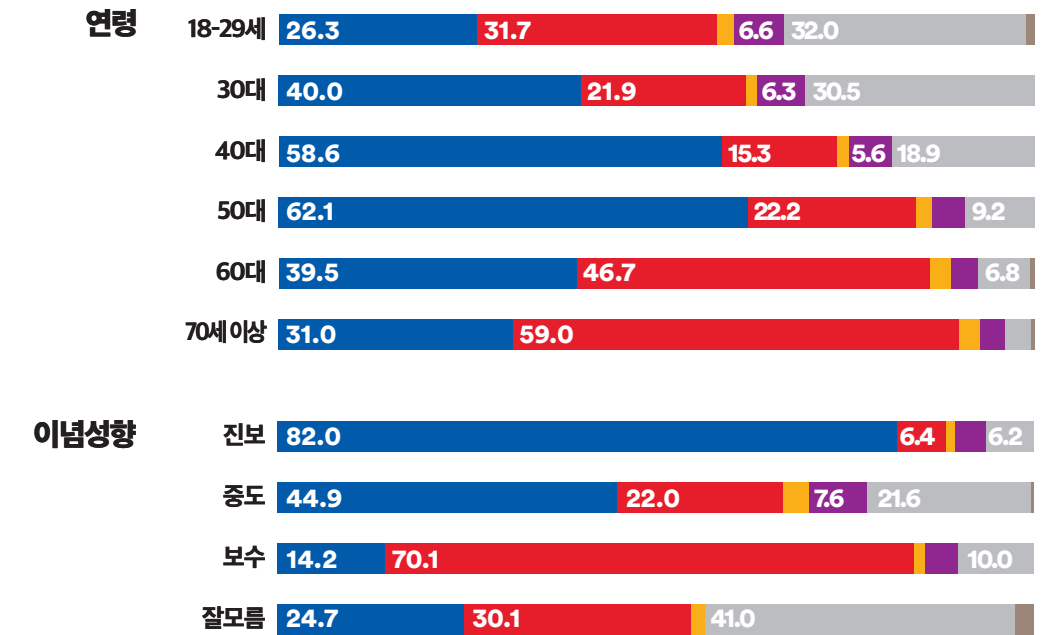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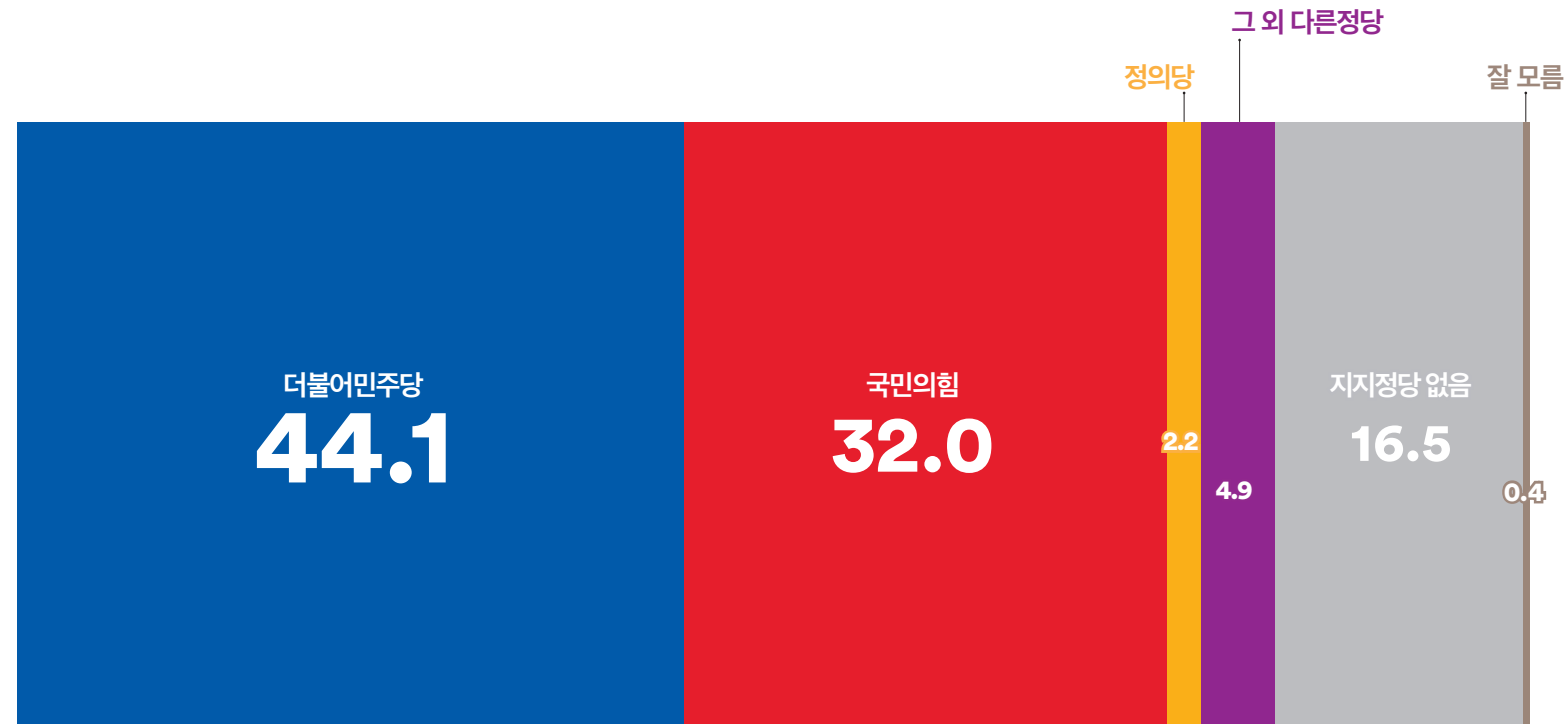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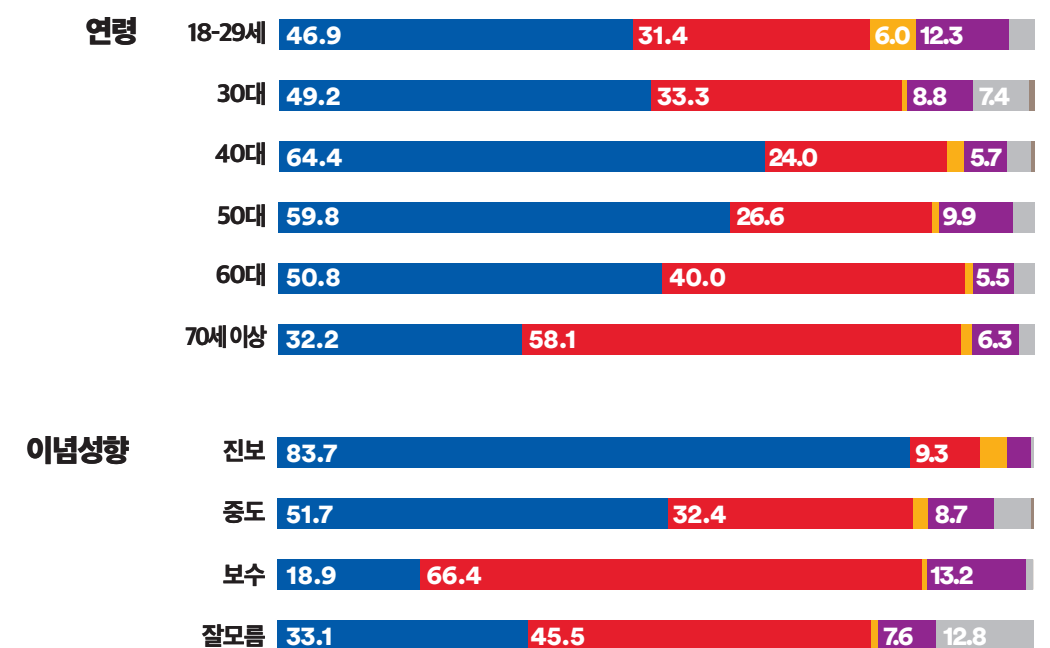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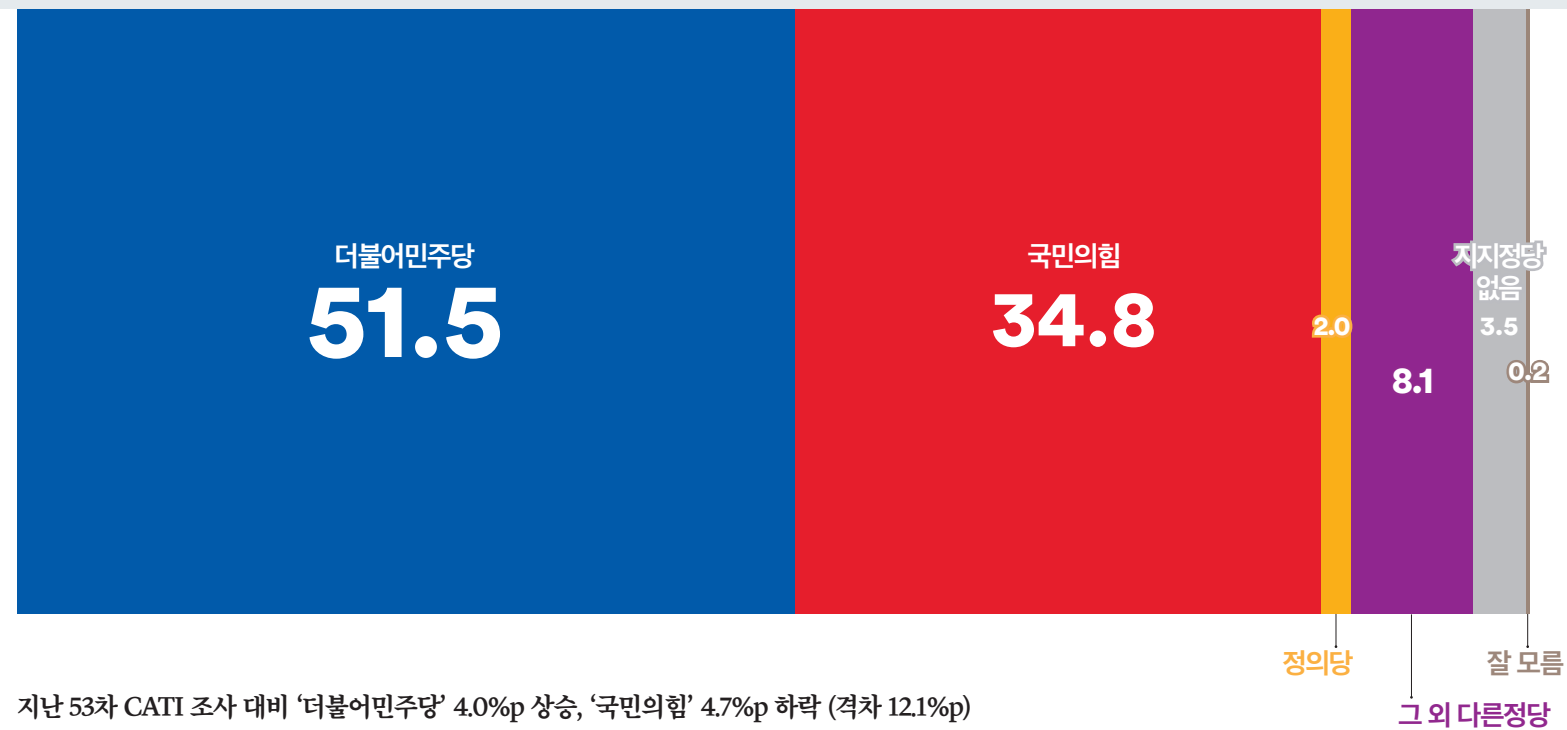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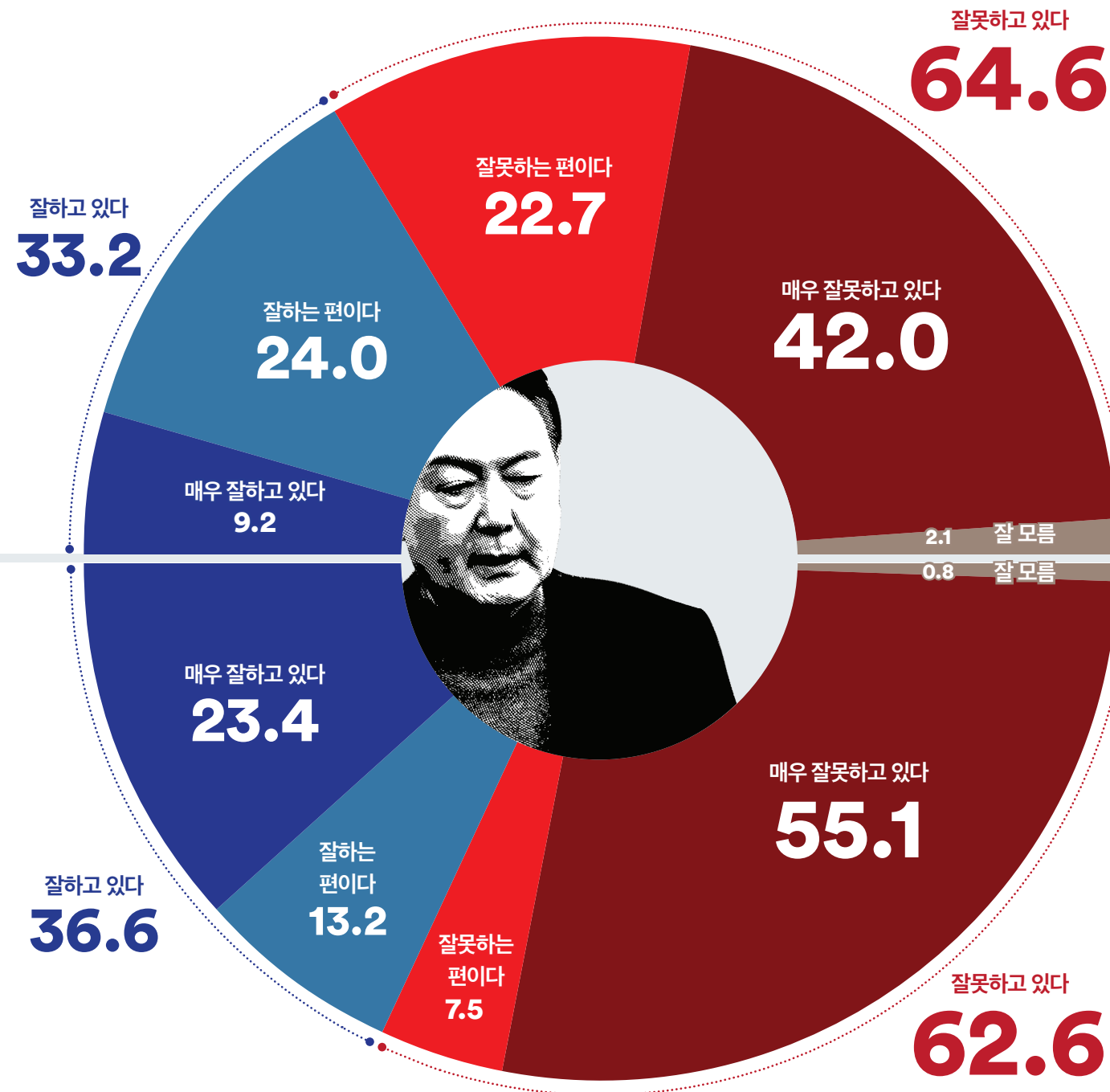
ARS



지난 53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4.0%p 상승, '국민의힘' 4.7%p 하락 (격차 12.1%p)
 지난 68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1%p 상승, '국민의힘' 1.3%p 하락 (격차 16.7%p)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TK권에서 앞서거나 우세
 40·50대(ARS 30대 포함), 진보층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 및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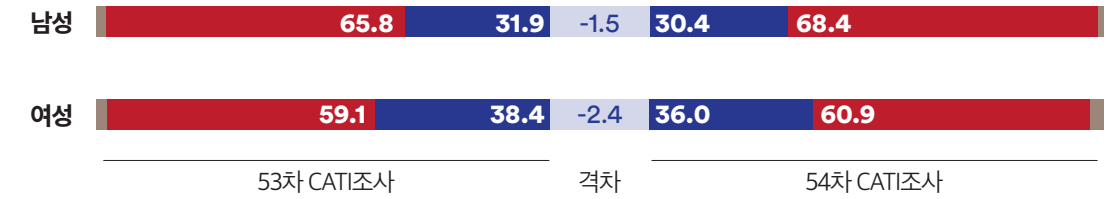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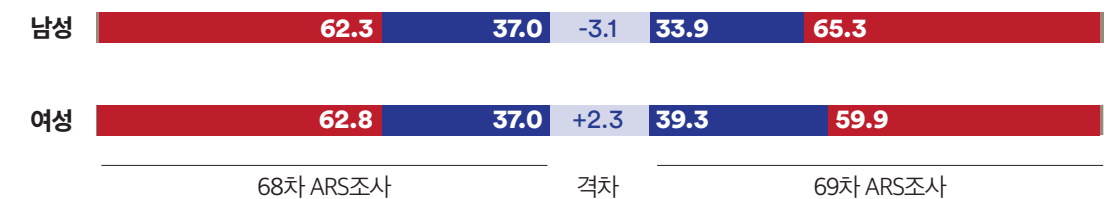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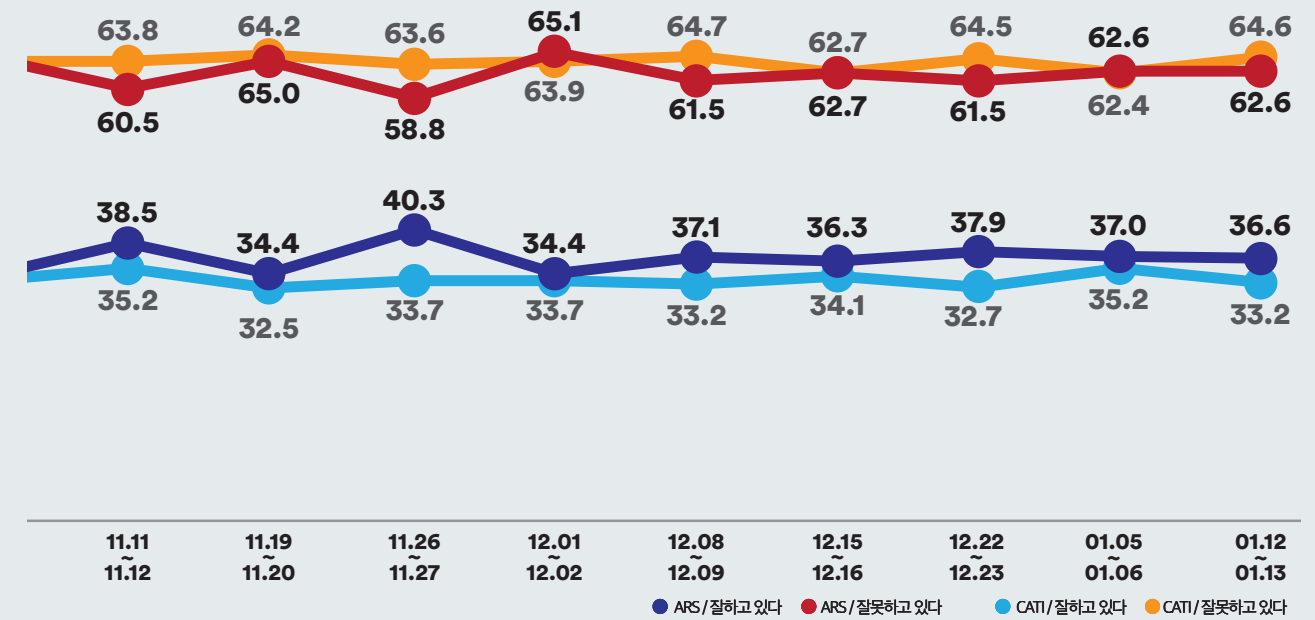


ARS

지난 53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2.0%p 하락, '부정' 평가 2.2%p 상승 (격차 31.4%p)
 지난 68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4%p 하락, '부정' 평가 변동없음 (격차 26.0%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ARS는 60대 포함)은 '부정' 평가, 70세 이상은 '긍정' 평가우세
 중도층의 긍·부정 평가 격차는 CATI 조사 53.1%p(지난조사 : 48.5%p), ARS 조사 32.9%p(지난 조사: 2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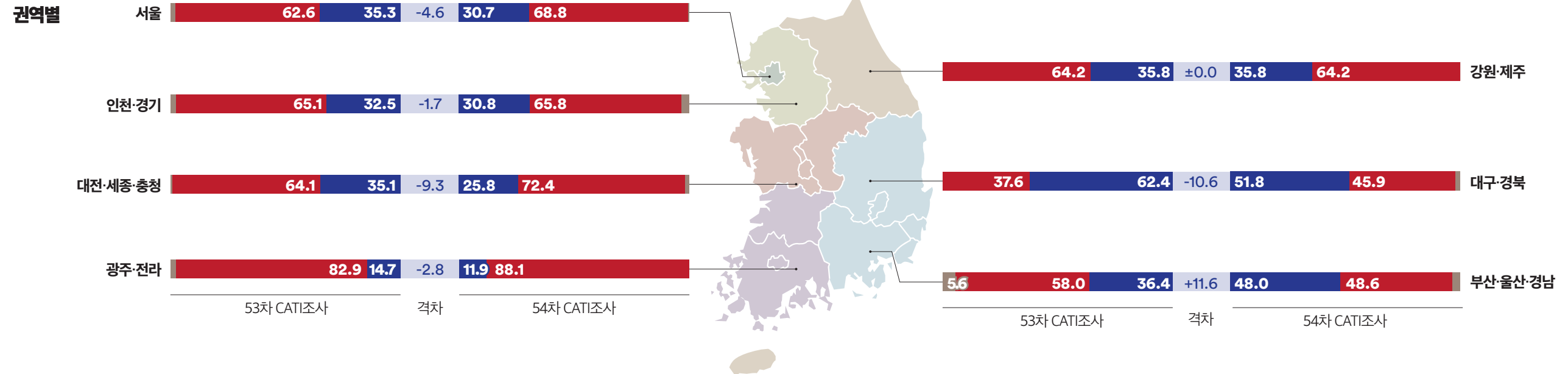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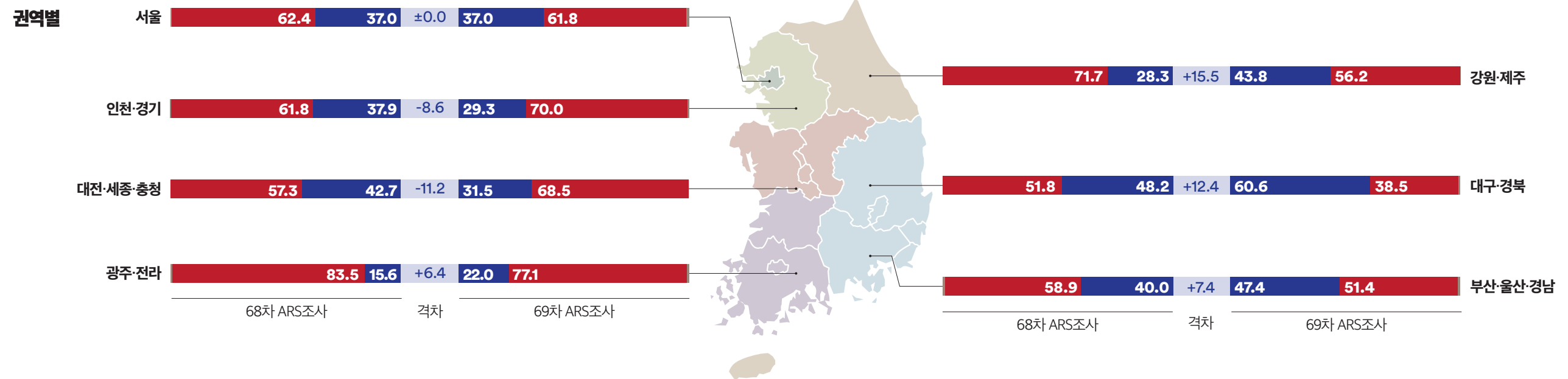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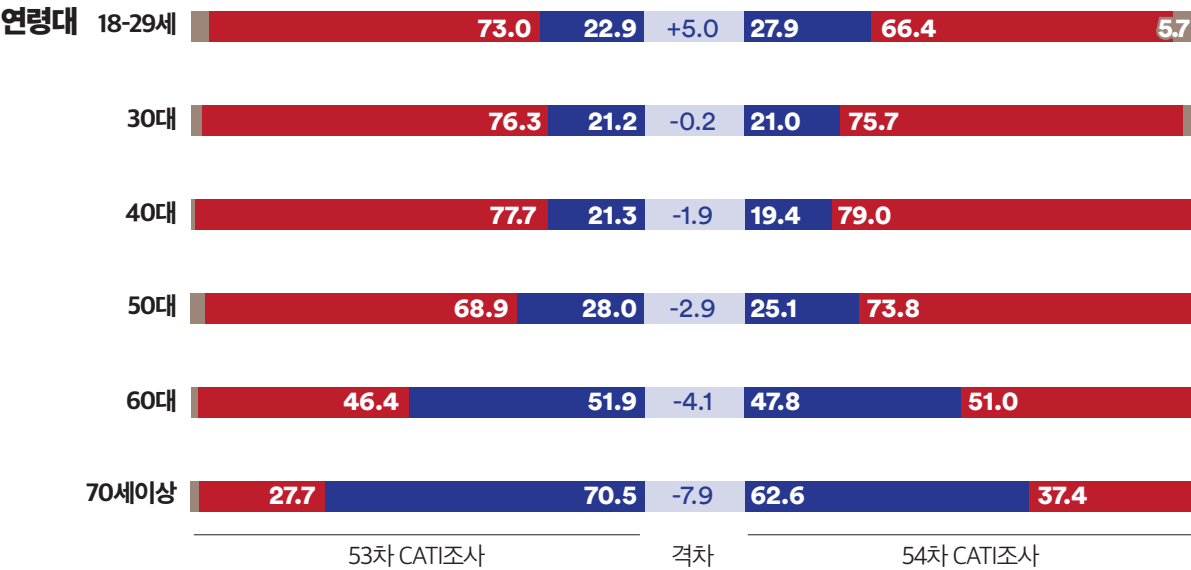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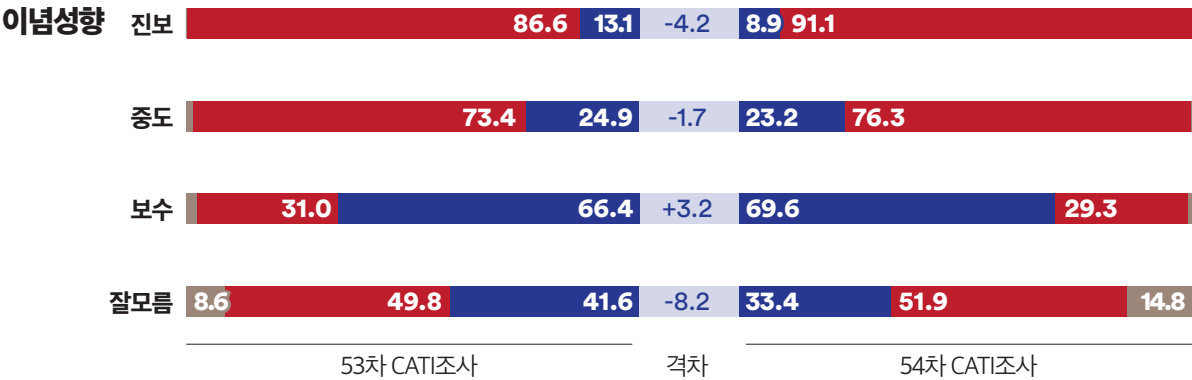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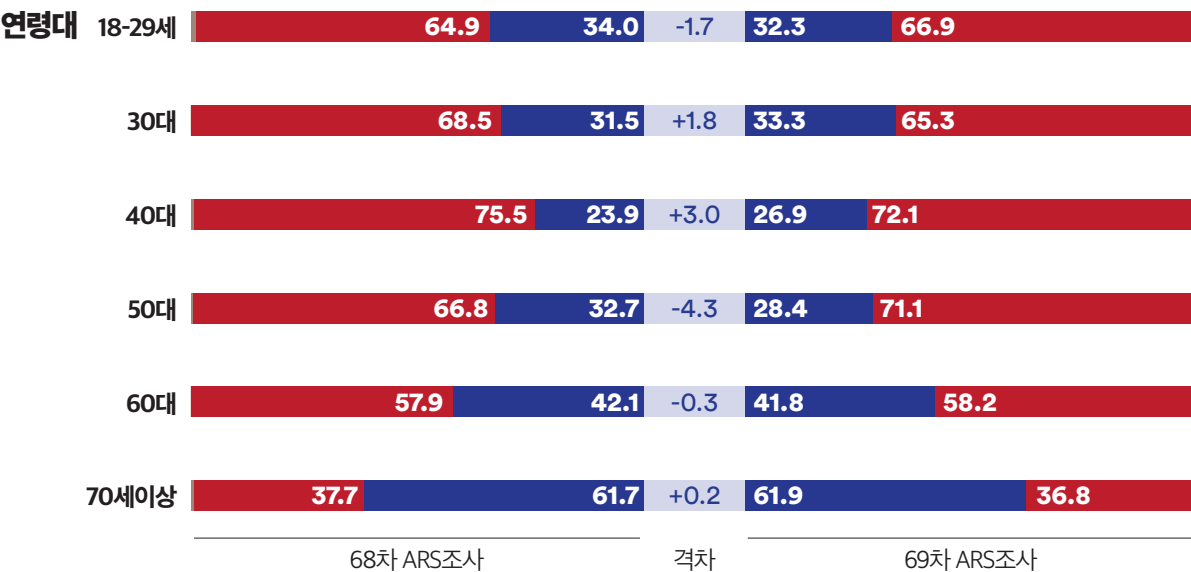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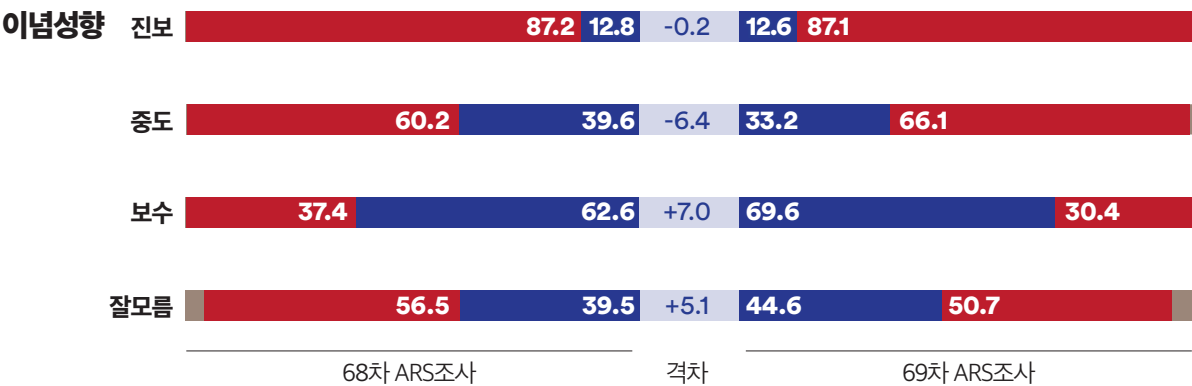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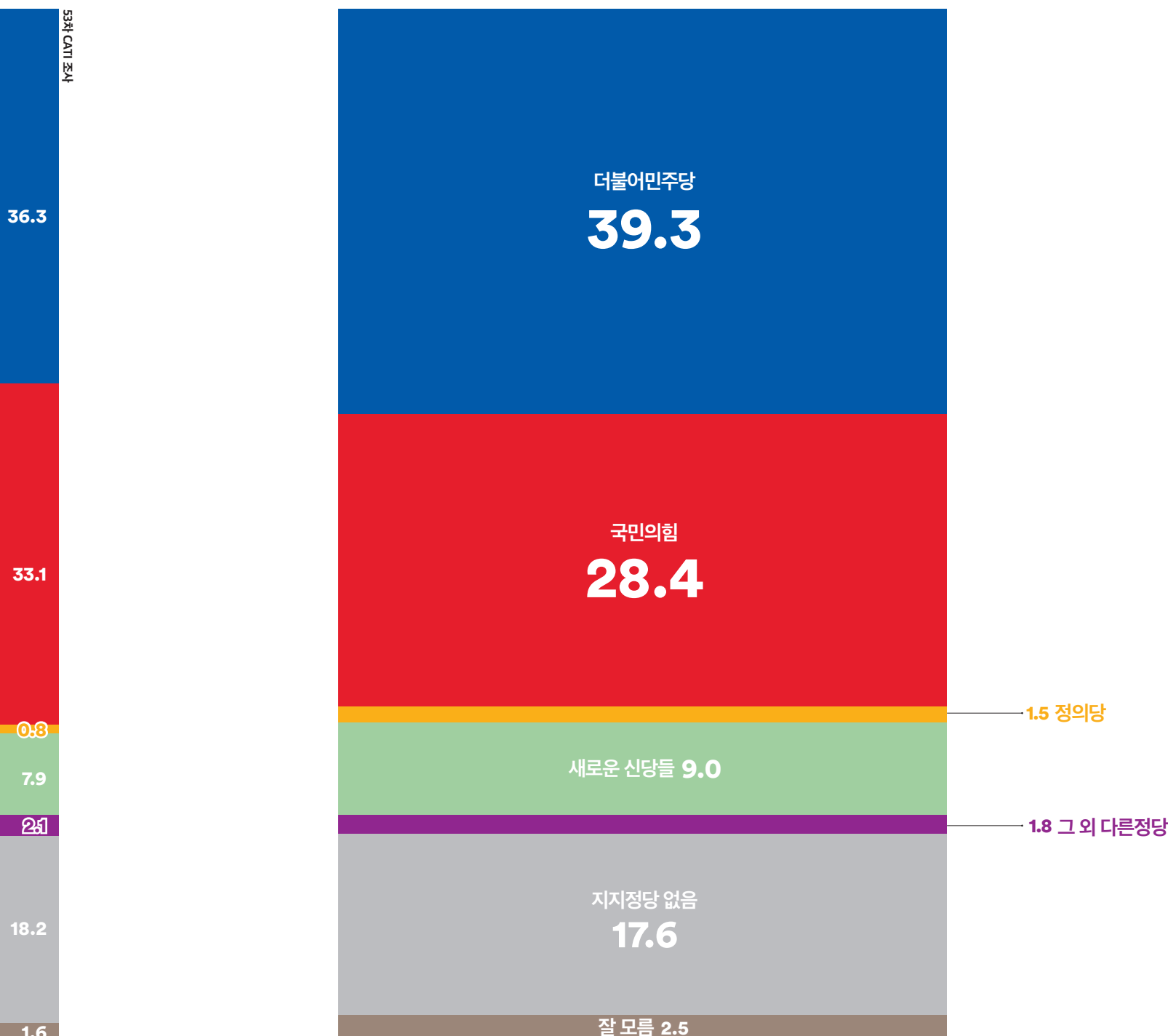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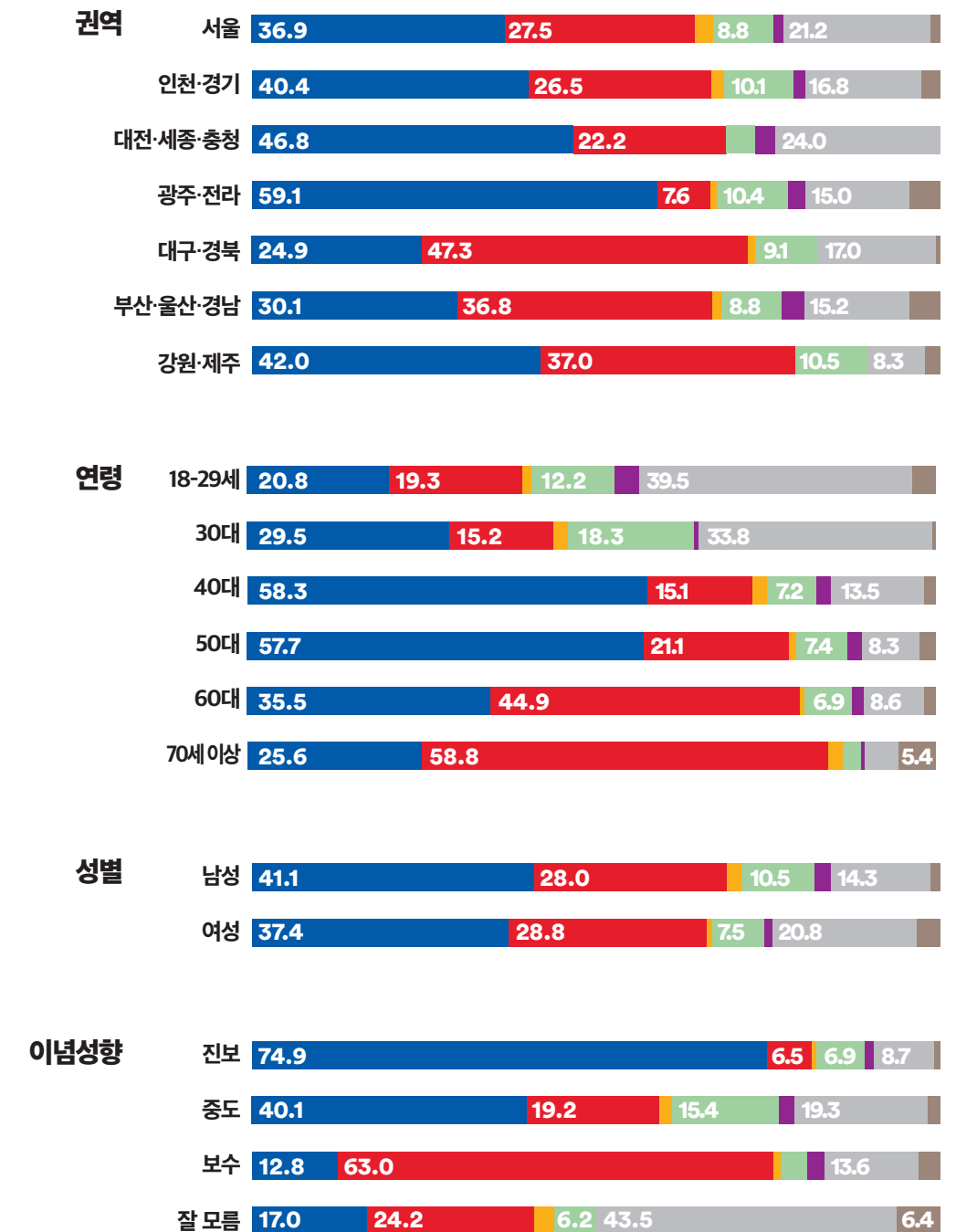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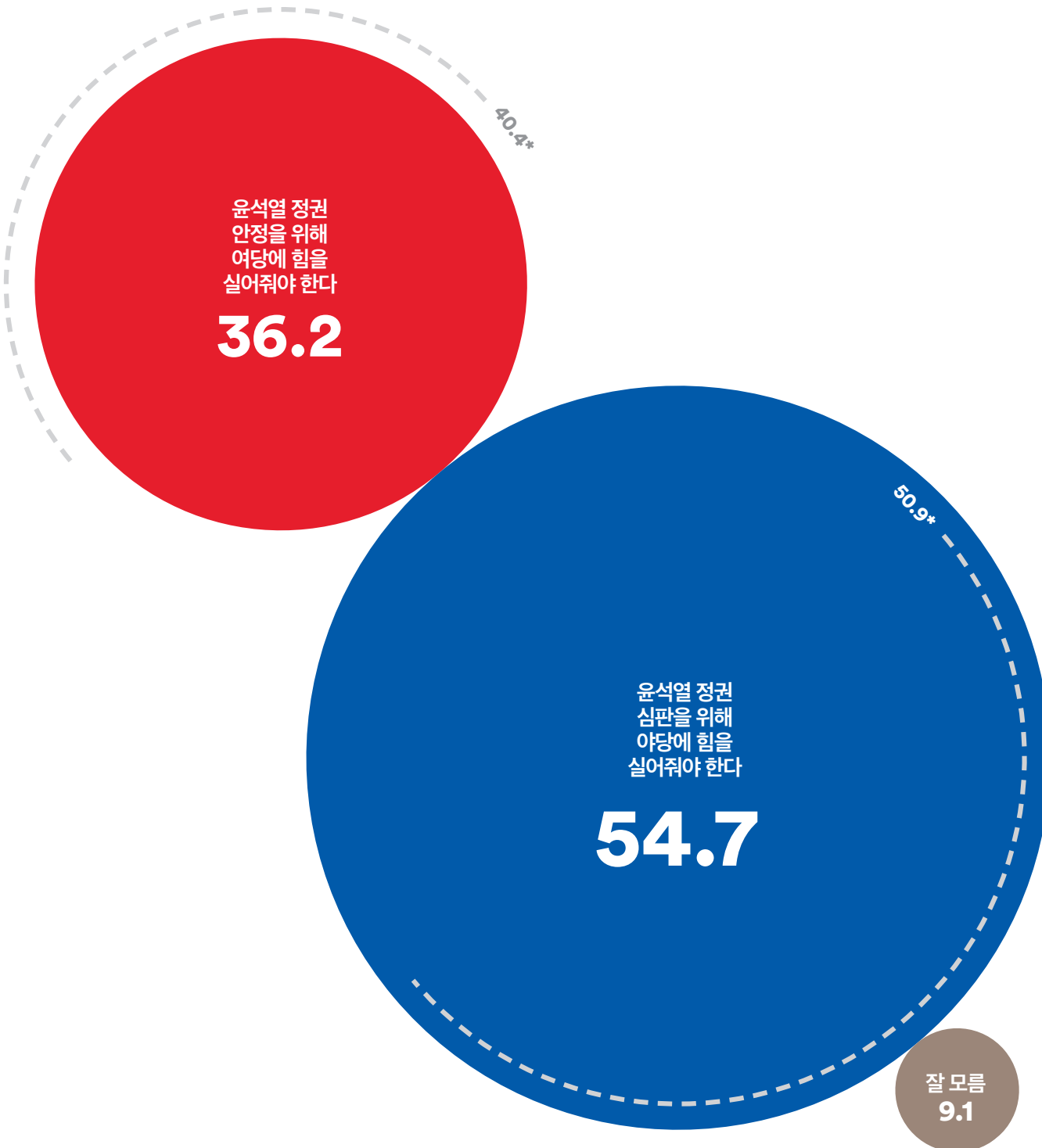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승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 대비 앞섬(격차 10.9%p)
지난 53차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0%p 증가, ‘국민의힘’은 4.7%p 감소, ‘새로운 신당들’은 1.1%p 증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TK와 PK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모든 성별, 중도층, 30대~50대는 ‘더불어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20.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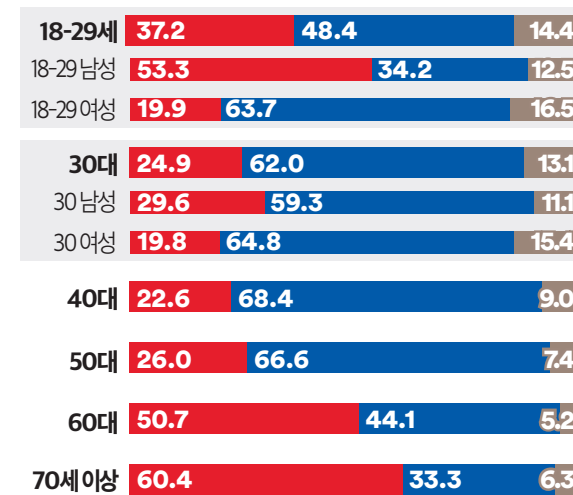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 신당들
그 외 다른정당 없음 잘 모름

Q. 차기 총선에 대해, 다음 중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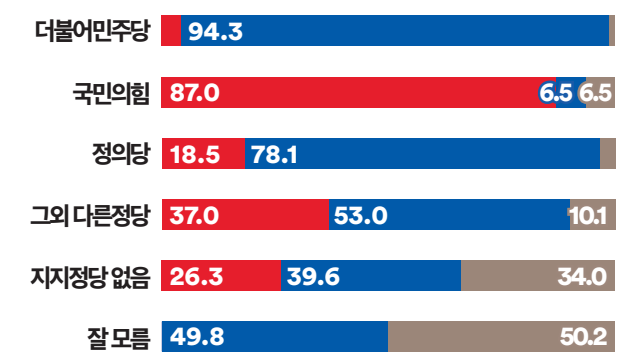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 우세 (격차 18.5%p)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제주 및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정권 심판론', TK, PK 및 60대 이상 응답층은 '정권 안정론'이 앞서거나 우세
무당층 및 중도층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 격차 3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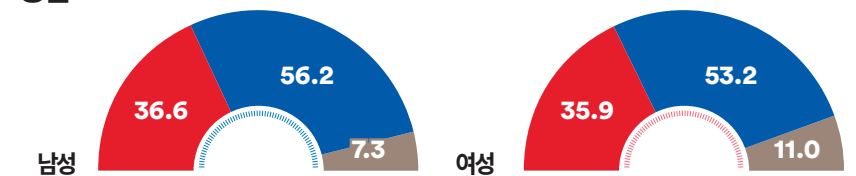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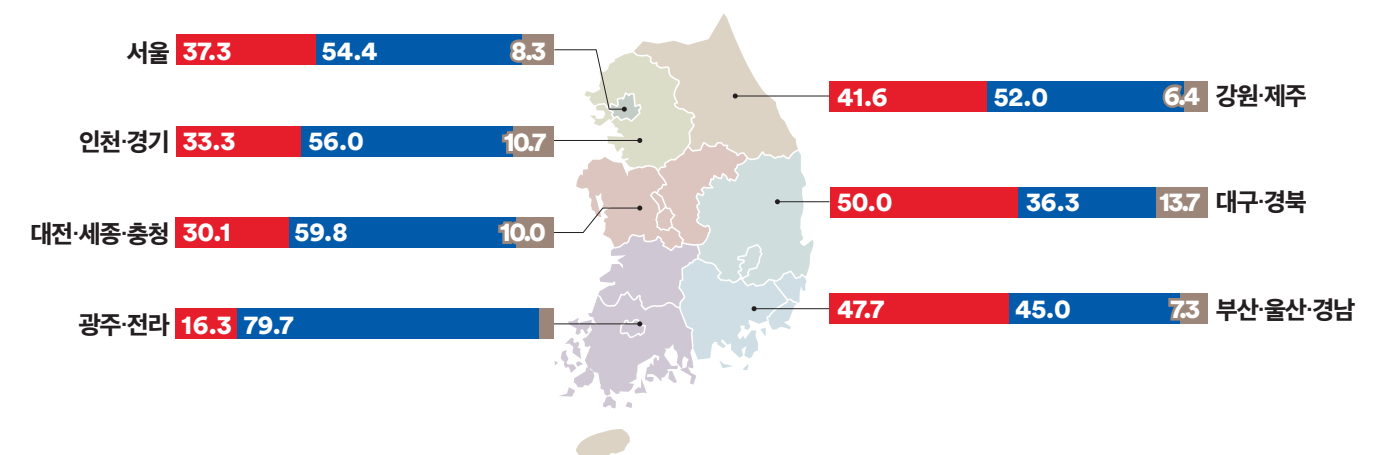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53차 CATI 조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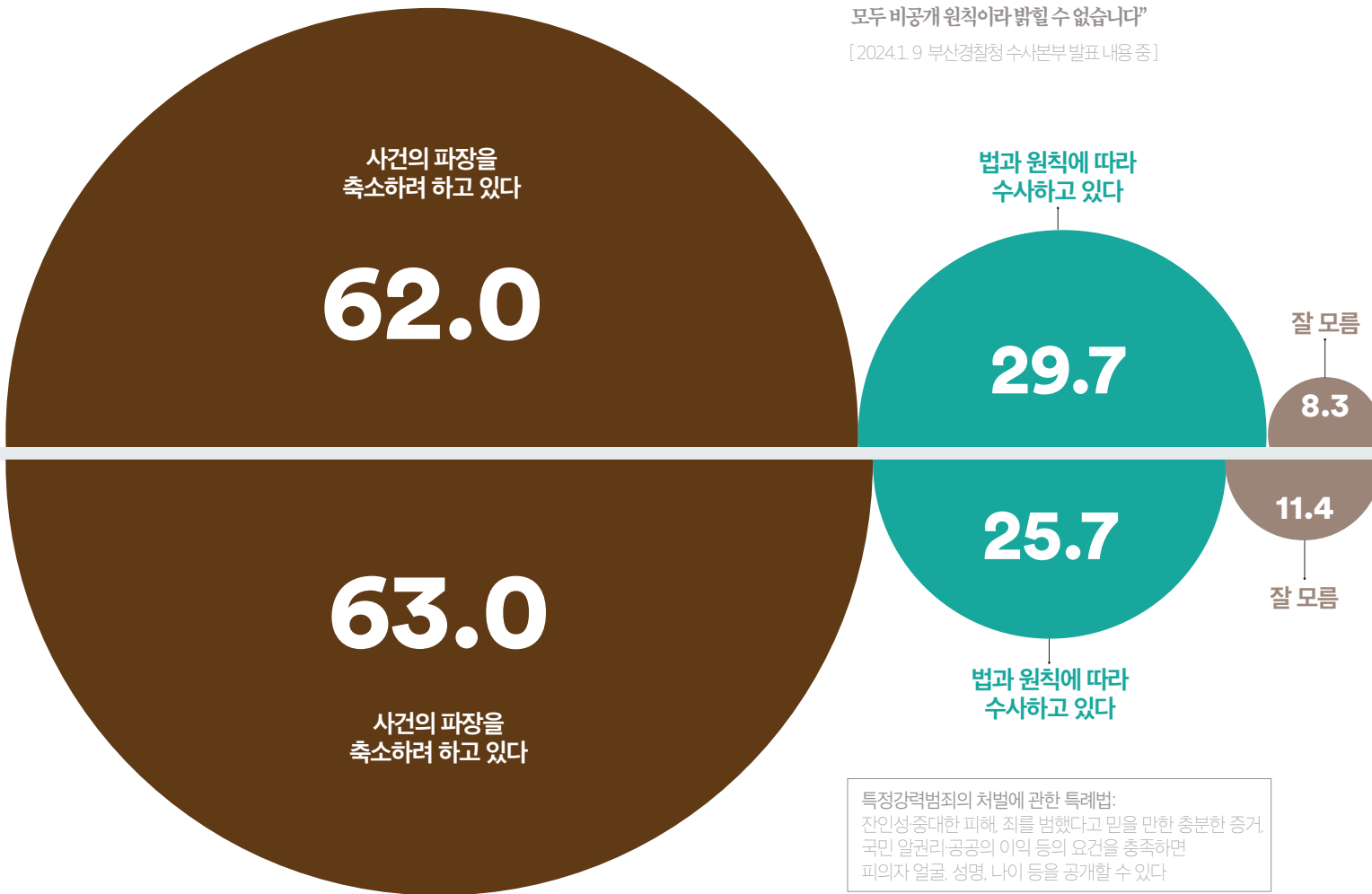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경찰 수사 방식

Q.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의 당적, 신상, 편지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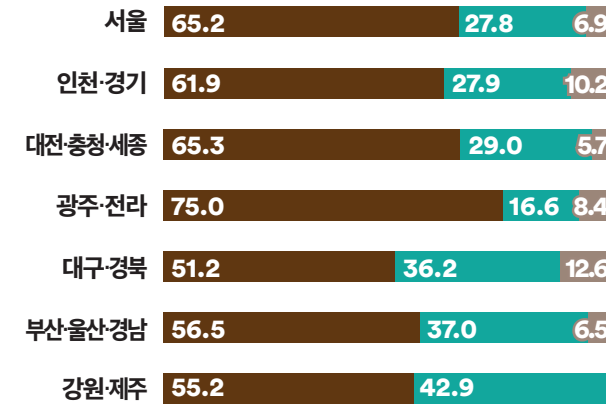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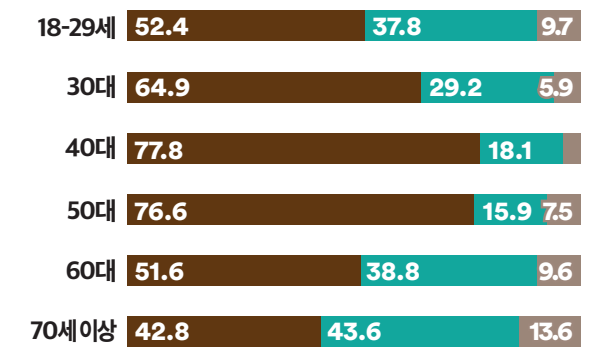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격차: CATI 32.3%p, ARS 37.3%p)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3.3%, ARS 27.6%의 응답자가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고 응답
CATI 조사의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응답이 앞섬
중도층은 두 조사 모두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CATI 31.9%p, ARS 34.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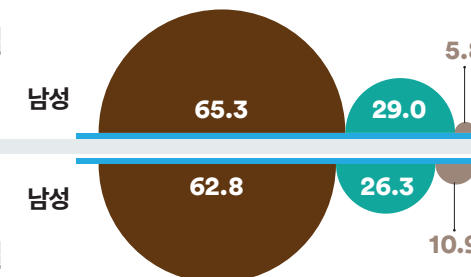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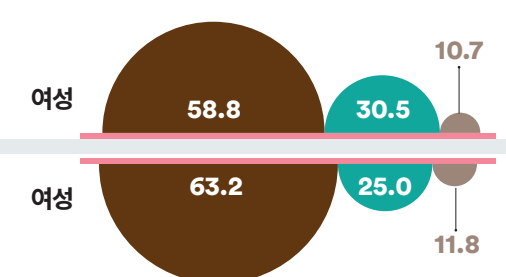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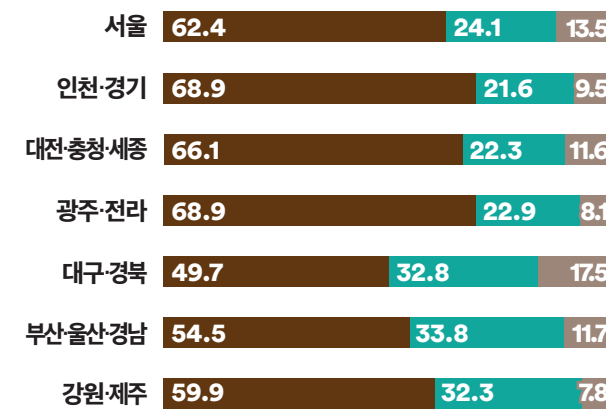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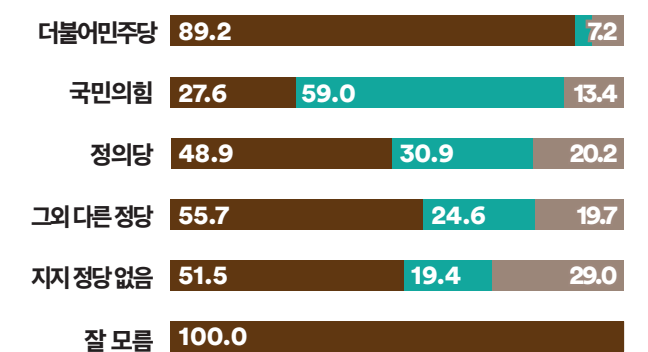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모르겠다



Q. 경찰은 살인미수범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없이 단독 범행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독 범행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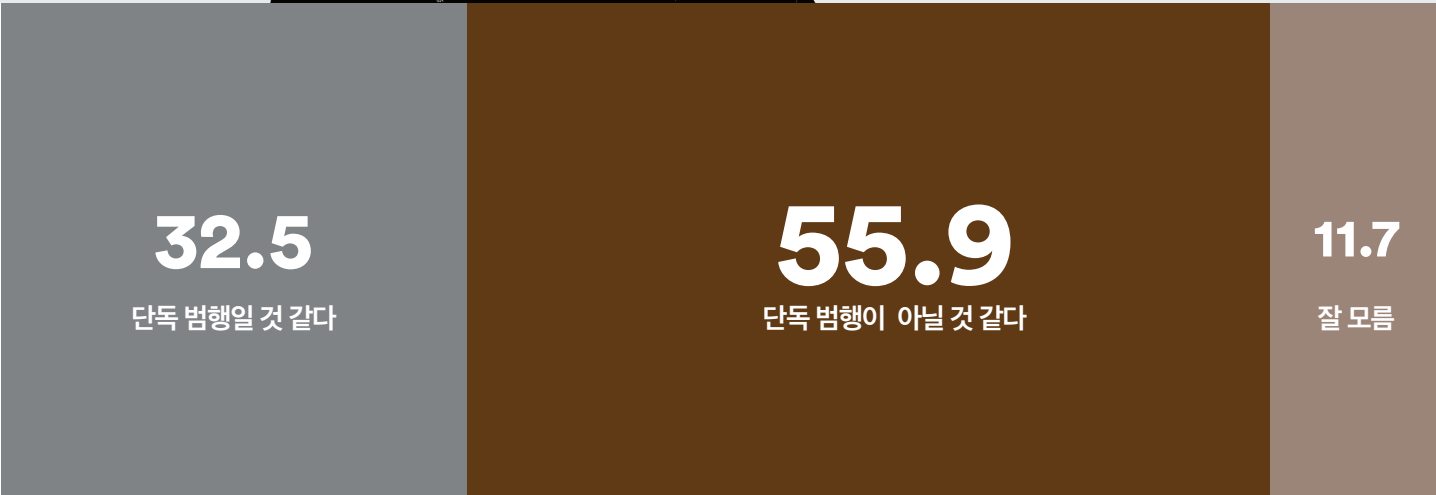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피의자는 혼자 계획하고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통화 내역, 거래 계좌, 행적 수사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있었고, 범행 이후 메모를 가족과 언론 매체등에 전달할 것들을 약속하고 조력자 한 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한바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세력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1월 10일 부산 경찰청 수사본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발언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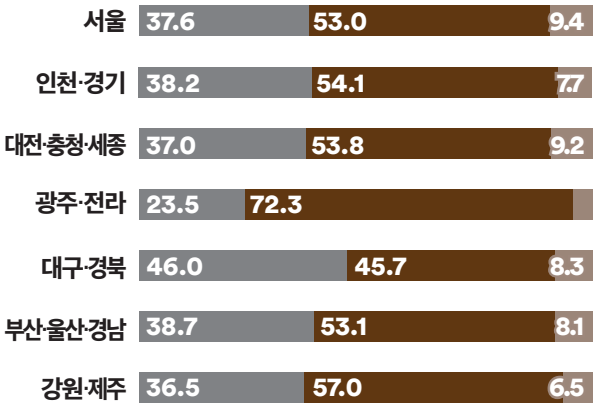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고 응답(격차: CATI 17.5%p, ARS 23.4%p)

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은 모두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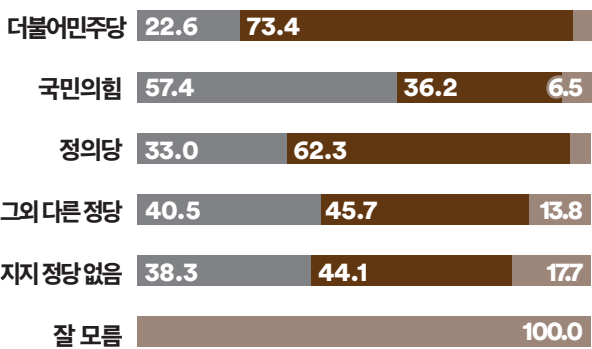
CATI 조사의 60대, ARS 조사의 18-29세를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는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6.2%, ARS 25.8%의 응답자가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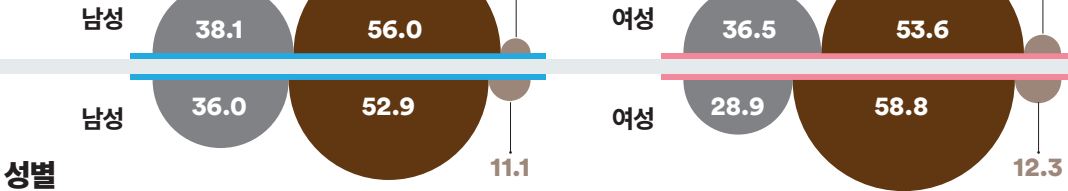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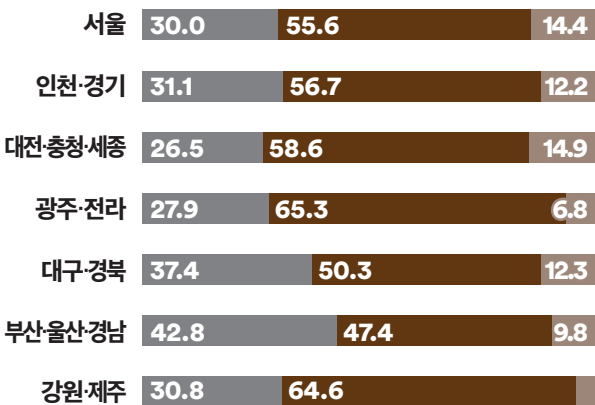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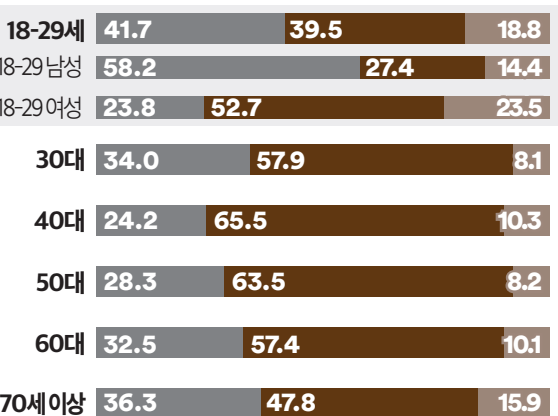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단독 범행일 것 같다 단독 범행이 아닐 것 같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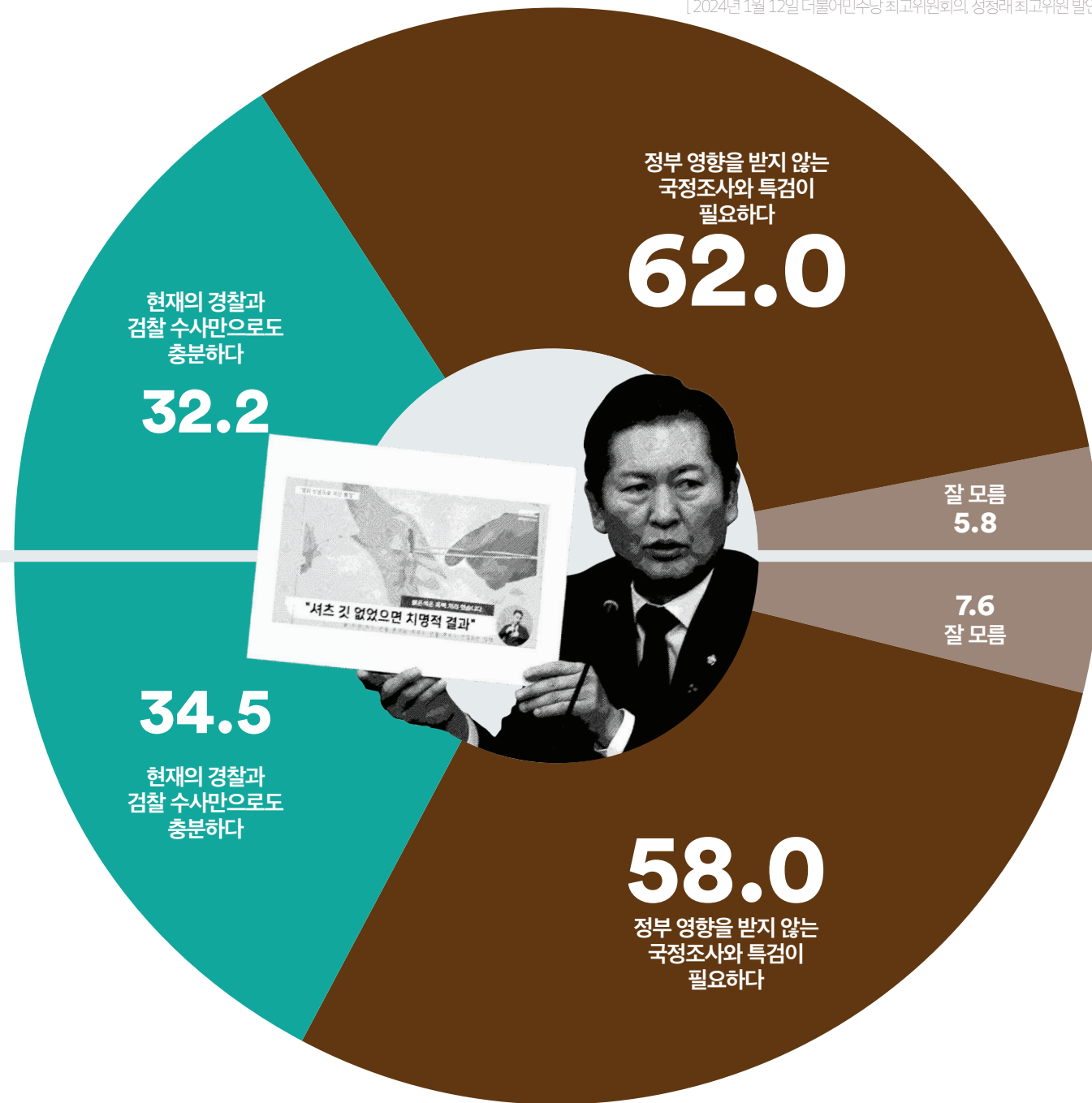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여부

Q.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자체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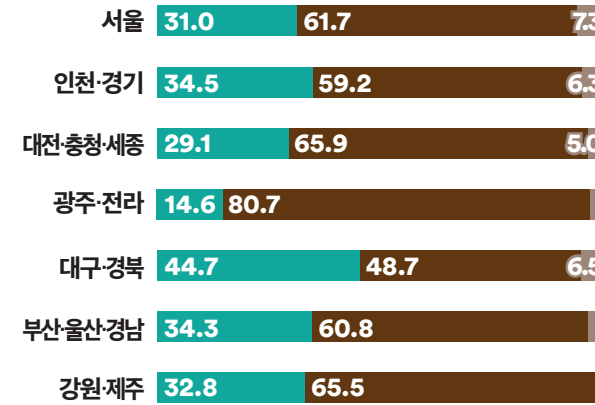
ARS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입니다.”
“경찰은 부실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아니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정정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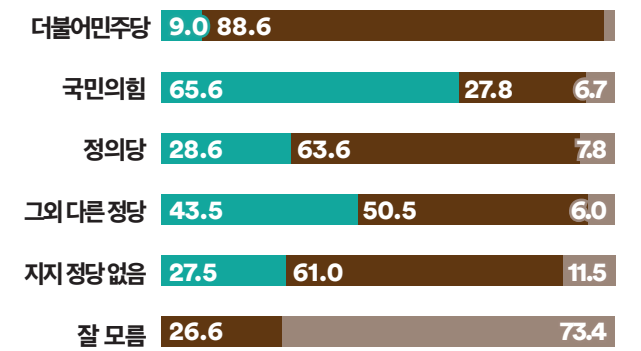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 혹은 이상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 (격차: CATI 29.8%p, ARS 23.5%p)
ARS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은 모두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섬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50대(ARS는 60대 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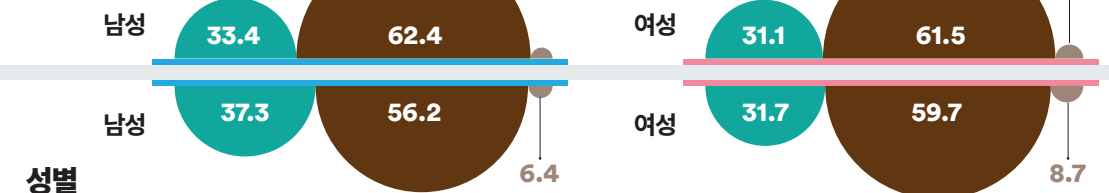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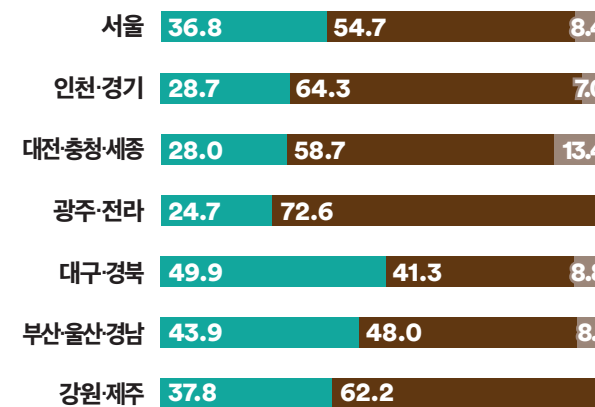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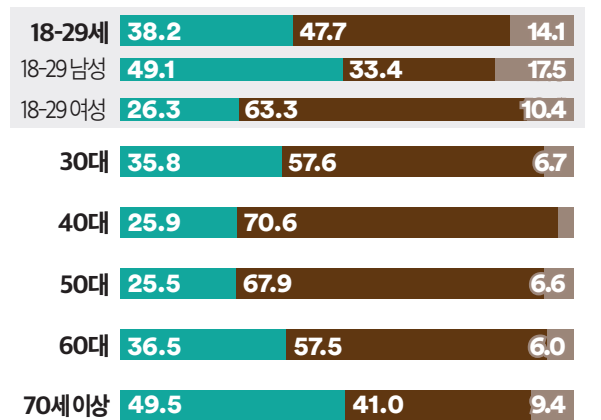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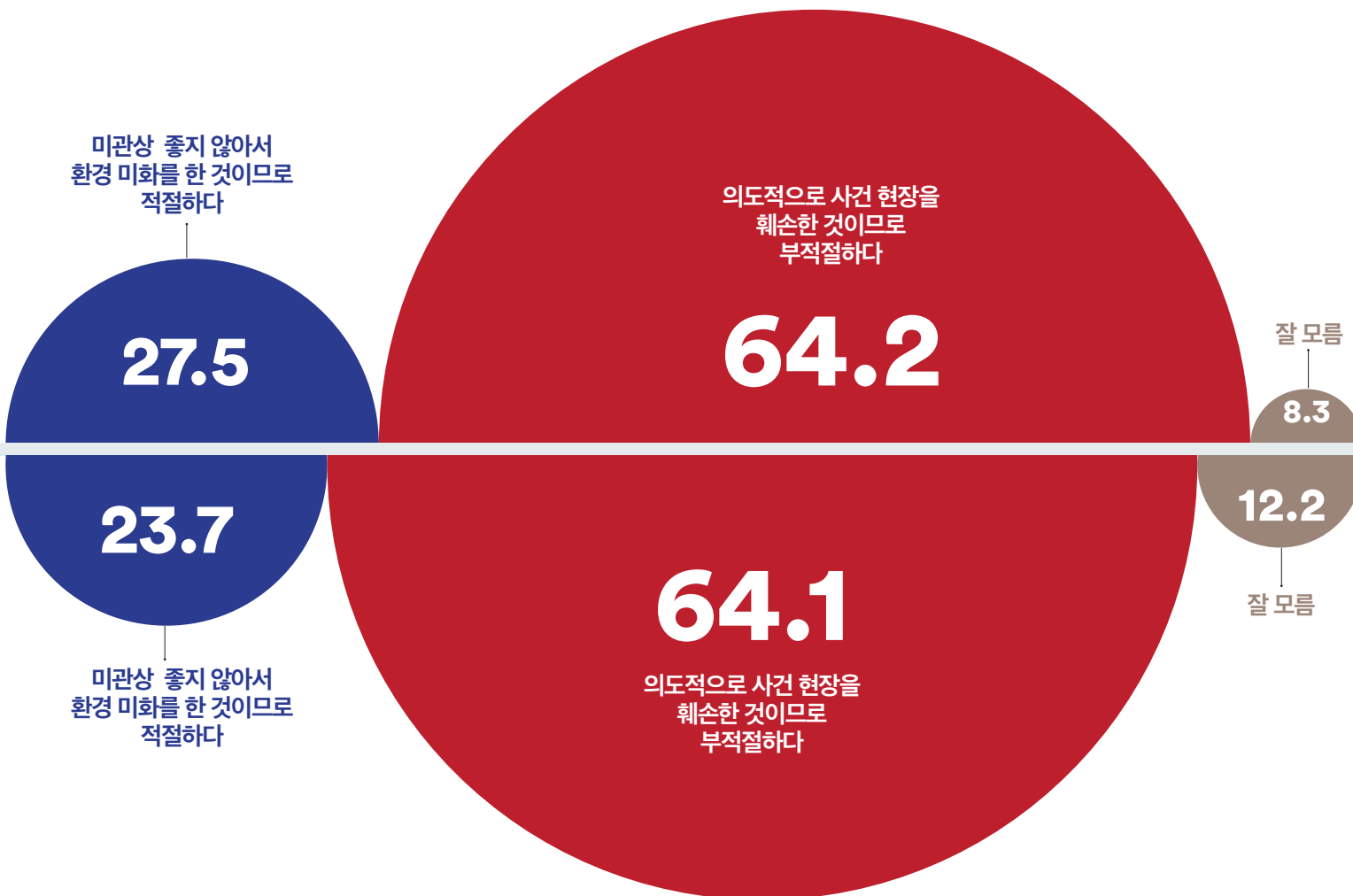
현재의 경찰과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경찰의 사건현장 물청소

Q. 경찰은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발생 38분 만에 직접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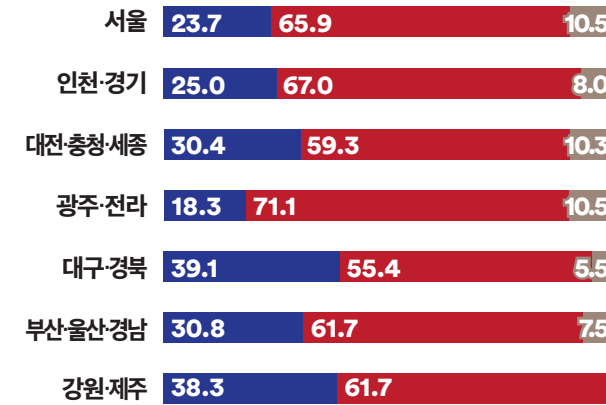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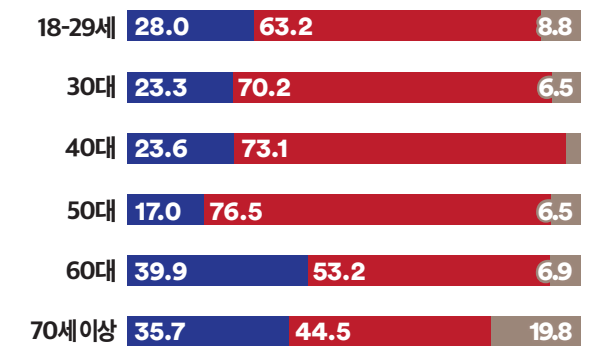


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 (격차: CATI 36.7%p, ARS 40.4%p)
두 조사의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섬
두 조사의 수도권, 충청, 호남, PK (ARS 강원·제주 포함), 50대 이하 응답층(CATI는 전 연령대)에서 해당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 중 CATI 39.5%, ARS 30.0%의 응답자가 '의도적 현장 훼손으로 부적절하다'고 응답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중도층 격차: CATI 32.4%p, ARS 35.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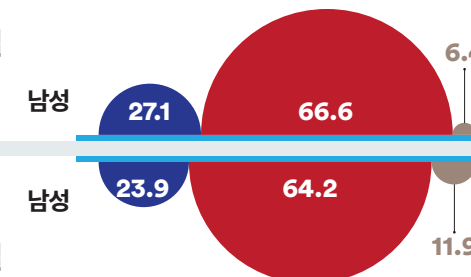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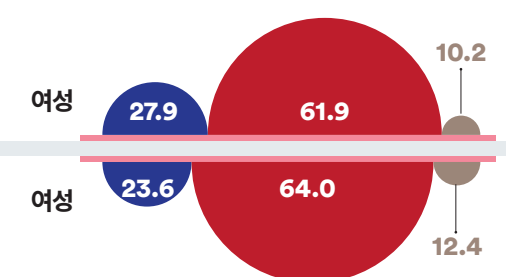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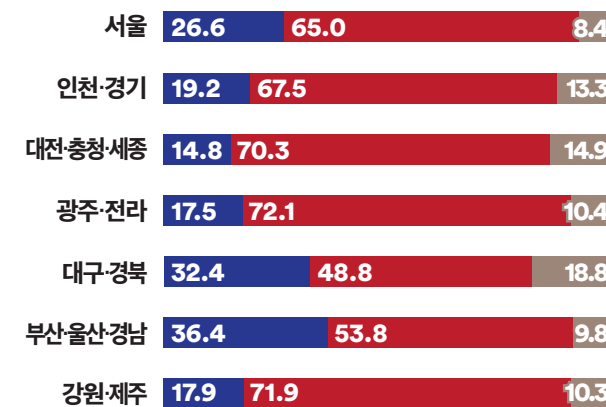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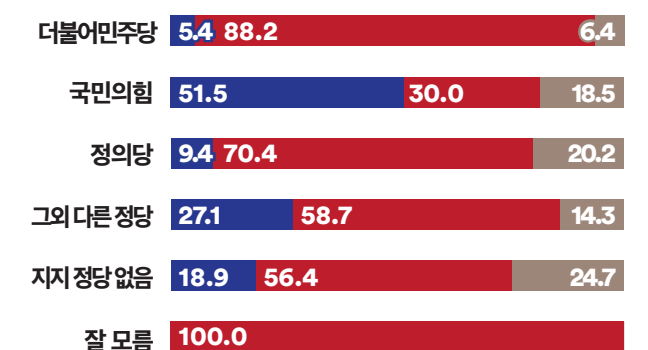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환경 미화를 한 것이므로 적절 (Blue bar)
사건 현장을 훼손한 것이므로 부적절 (Red bar)
모르겠다 (Grey bar)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01_05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